퀀틴전시 플랜

[다음주 시장은?] KOSPI 6,000 돌파 이후 전열 재정비

[투자전략팀]

정해창 / Strategist Jr.
haechang.chung@daish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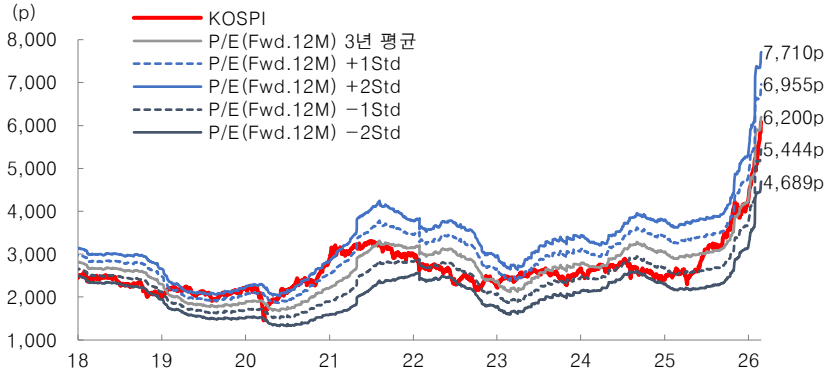
이경민 / Strategist
kyoungmin.lee@daishin.com

주간 전망

6천선 안착 과정에서 상승 지속성이 시험대에 오를 것. 이벤트 리스크에 대응

- 코스피가 1월 27일 5,000선을 돌파한 지 단 18거래일 만에 사상 최초로 6,000포인트를 돌파,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실적 가시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상법 개정과 기업가치 제고 정책이 맞물리면서 한국 증시 역사상 유례없는 폭발적 상승세를 시현. 그러나 3월말 주주총회와 1분기 프리어닝시즌 전까지 실적 전망 상승세가 주춤할 수 있고, 이번주 25일 3차 상법 개정 입법이 완료되면서 정책 모멘텀 정점 통과. 대내외 이슈를 소화하며 코스피는 상승의 지속성을 시험할 것
- 3월 4일부터 개막하는 중국의 양회는 경기 민감주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분수령. 시장이 주목하는 핵심은 5% 내외의 GDP 성장률 목표치 설정 여부와 내수소비 지원책. 중국 정부가 대규모 재정 투자를 통한 내수 부양 의지를 강력히 표명할 경우 재정 투입 경로에 따른 수혜주들이 부각될 수 있음.
- 중국 통계국 제조/서비스 PMI는 3월 4일 발표될 예정. 제조업은 49.0으로 전월(49.3) 대비 둔화, 서비스업은 49.8로 전월(49.4)대비 소폭 상승하는 엇갈린 흐름이 관측될 것으로 예상. 이러한 엇갈린 흐름은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내수 부진 환경 속에서 '전통 제조'를 축소하고 '서비스 및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과도기를 의미
- 미국은 고용보고서 발표에 집중. 6일 한국 증시 마감 이후 발표될 비농업 고용보고서(고용자수, 실업률)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리 유입 가능. 이에 앞서 4일 발표되는 ADP 취업자수는 4.3만 명으로 전월(2.2만 명)대비 개선, 미국 고용이 저점을 확인했다는 기대심리 유입 가능. 연준의장 교체를 앞두고 통화정책 기대는 약해질 수 있지만 최근의 경기민감주, 내수주 로테이션이 강화될 가능성에 주목
- 3월 1일 발표될 한국 2월 수출입은 코스피의 펀더멘털을 뒷받침하는 근거. 반도체 수출의 역대 최대치 경신 지속 여부 확인
- 이외에도 미국과 이란간 핵협상 진행 및 트럼프 행정부의 무력사용 가능성과 케빈 워시 차기 연준의장의 청문회 일정 확정 여부 등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잠재적 불확실성 요인 또한 변동성을 키울 수 있음. 이벤트 리스크의 모니터링 필요
- 현재 코스피는 반도체 업종의 이익 전망치 상향조정을 중심으로 선행 EPS가 607.8pt까지 상승. 6,300pt로 환산하여도 선행 P/E는 장기 평균 부근인 10.4배, 과거 유동성으로 상승하던 국면과 차별화. 사상 최고치 흐름의 추세가 반전되지는 않을 것
- 실적/정책 공백기 단기 등락이 나타날 경우 이익 모멘텀이 견고한 종목의 비중확대 전략.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유틸리티, IT하드웨어 업종 등.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시클리컬로 이동하는 글로벌 로테이션 흐름 캐치. 상법개선 이후 기대감이 현실이 될 통신, 소매/유통 등 가치주의 바텀업 접근 또한 순환매 관점에서 유효

실적 모멘텀을 근거로 6천피 시대 진입, 20~21년 유동성 장세와 차별화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대신증권 리서치 소속 **퀀트**, **전**략, **시**황 애널리스트의 현재 시장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담아낸 자료입니다. 매일 이슈에 대한 분석과 시장 리뷰, 확인해야 할 데이터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OSPI, 업종별 수익률 추이

주요 지수	현재가	등락율(%)						
	(p)	1D	1W	1M	3M	6M	12M	YTD
KOSPI	6,307	3.7	11.1	27.4	59.2	98.4	138.8	49.7
에너지	6,972	0.3	5.8	31.9	41.4	76.7	91.8	46.3
화학	5,571	0.1	7.7	11.8	14.2	40.3	44.5	24.5
비철,목재	10,187	-2.6	18.1	10.8	58.2	92.6	112.4	44.0
철강	2,825	0.2	4.5	10.9	27.9	31.7	40.6	30.1
건설,건축	2,453	2.6	15.1	36.8	65.4	62.9	112.1	61.3
기계	12,878	2.3	10.3	21.8	40.3	76.2	202.7	43.7
조선	10,492	-1.5	3.3	3.0	15.4	33.5	106.4	20.3
상사,자본재	5,170	1.7	10.8	19.2	61.2	97.1	168.9	48.9
운송	2,244	-1.5	5.9	19.0	39.2	25.3	37.5	27.3
자동차	20,096	6.3	17.6	22.8	91.2	113.5	132.1	69.5
화장품,의류	5,825	0.7	1.3	12.4	14.4	10.8	45.3	18.8
호텔,레저	2,405	-1.5	-2.1	9.5	9.3	4.6	37.3	4.1
미디어,교육	888	-1.3	-2.9	1.9	22.6	18.7	38.4	12.6
소매(유통)	2,599	-2.6	-0.6	22.0	30.8	41.5	54.3	28.9
필수소비재	7,627	-3.9	-1.4	12.1	9.0	9.0	34.7	12.0
건강관리	12,218	-0.3	0.6	6.7	17.0	41.1	31.9	15.5
은행	3,513	-1.4	-1.8	23.7	32.5	48.0	92.7	31.2
증권	3,963	0.4	-0.9	52.1	78.0	96.0	165.5	76.5
보험	13,871	-0.4	6.2	28.2	38.0	48.1	90.2	33.5
소프트웨어	7,897	2.9	4.5	0.2	6.3	10.1	23.1	10.2
IT하드웨어	2,048	3.1	24.1	40.5	44.5	127.5	151.6	49.5
반도체	36,716	7.6	17.8	45.5	110.9	243.2	328.7	76.7
IT가전	2,696	3.9	10.9	16.3	31.2	61.3	52.5	45.5
디스플레이	937	5.5	26.1	25.5	24.6	30.8	52.5	32.8
통신서비스	494	0.6	0.3	24.4	35.4	29.5	42.3	34.4
유틸리티	1,839	-1.1	2.8	8.5	23.5	58.4	123.3	35.5

주: Top 5, Bottom 5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PI, 업종별 YTD 수익률

글로벌 밸류에이션 테이블

권역/국가	P/E			P/B			ROE(%)			12M fwd EPS Revision		
	2026년	2027년	12M fwd	2026년	2027년	12M fwd	2026년	2027년	12M fwd	1W	1M	속도
전세계	19.3	16.8	18.8	3.3	3.0	3.2	17.0	17.6	17.1	-0.5	3.3	
선진국	20.5	17.9	19.9	3.6	3.2	3.5	17.4	18.1	17.5	-0.6	2.4	
신흥국	13.4	11.6	13.1	2.1	1.8	2.0	15.3	15.7	15.4	0.2	8.3	
북미	22.3	19.2	21.5	4.6	4.1	4.5	20.8	21.4	20.9	0.1	1.9	
유럽	16.1	14.3	15.8	2.3	2.1	2.3	14.4	15.0	14.5	-1.1	1.2	
퍼시픽	17.5	16.0	17.4	1.9	1.7	1.9	10.6	10.9	10.6	0.6	4.7	
라틴	11.9	10.5	11.6	2.0	1.9	2.0	17.2	18.0	17.4	-0.4	3.3	
EM 유럽	9.6	8.4	9.4	1.3	1.2	1.3	14.1	14.4	14.2	-0.6	1.4	
EM 아시아	14.0	12.0	13.7	2.1	1.9	2.1	15.0	15.4	15.0	0.3	9.6	
선진 시장												
S&P 500	22.4	19.3	21.6	4.8	4.2	4.6	21.2	21.8	21.3	0.1	2.1	
NASDAQ	27.1	22.2	25.7	6.3	5.3	6.0	23.3	23.9	23.5	0.1	2.4	
프랑스	15.8	14.1	15.5	2.0	1.9	2.0	12.6	13.2	12.7	0.0	0.4	
독일	15.5	13.5	15.1	1.8	1.7	1.8	11.6	12.5	11.8	-0.2	0.8	
영국	14.2	12.8	14.0	2.2	2.1	2.2	15.7	16.2	15.8	0.2	0.5	▲
일본	19.0	17.1	17.2	1.9	1.8	1.8	10.0	10.5	10.4	0.6	2.4	
신흥 시장												
중국	12.4	10.7	12.1	1.4	1.3	1.4	11.4	11.9	11.5	0.0	1.8	
인도	21.6	18.8	21.9	3.3	2.9	3.3	15.2	15.6	15.1	-0.1	1.3	
한국	9.3	8.1	9.1	1.8	1.5	1.8	19.5	18.7	19.3	0.1	28.4	
대만	20.0	16.5	19.4	4.1	3.6	4.0	20.4	21.6	20.8	0.0	3.5	
브라질	10.7	9.3	10.4	1.9	1.7	1.8	17.4	18.3	17.5	-0.2	1.4	

기준일: 2026.02.25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밸류에이션 테이블(Z-Score, ○: 2년 평균 기준, ●: 5년 평균 기준)

권역/국가	PE	Z-Score								
		-2이하	-2 ~ -1.5	-1.5 ~ -1	-1 ~ -0.5	-0.5 ~ 0	0 ~ 0.5	0.5 ~ 1	1 ~ 1.5	1.5 ~ 2	2이상
전세계	18.8							○	●		
선진국	19.9							○	●		
신흥국	13.1							○●			
북미	21.5						○	●			
유럽	15.8								●		○
퍼시픽	17.4										○●
라틴	11.6										○●
EM 유럽	9.4										○●
EM 아시아	13.7						○●				
S&P 500	21.6						○	●			
NASDAQ	25.7			○	●						
프랑스	15.5							●		○	
독일	15.1								○●		
영국	14.0										○●
일본	17.2										○●
중국	12.1							○●			
인도	21.9				○		●				
한국	9.1				●	○					
대만	19.4									○●	
브라질	10.4										○●

기준일: 2026.02.25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주요국 EPS Growth(% YoY)

권역/국가		2026년	2027년	2028년	27-28년 평균
권역(대)	전세계	16.6	14.6	11.3	12.9
	선진국	14.3	14.4	11.9	13.2
	신흥국	29.5	15.3	7.4	11.4
권역(소)	북미	15.9	15.9	12.9	14.4
	유럽	11.2	12.2	10.2	11.2
	퍼시픽	10.9	9.4	8.2	8.8
	라틴	12.2	12.8	14.3	13.6
	EM 유럽	11.2	13.6	6.2	9.9
	EM 아시아	34.3	16.2	6.4	11.3
선진국	S&P 500	15.2	16.3	13.2	14.7
	NASDAQ	30.9	21.6	16.6	19.1
	프랑스	14.0	11.5	10.8	11.2
	독일	11.8	15.2	11.2	13.2
	영국	9.3	11.2	9.8	10.5
	일본	7.9	11.2	10.3	10.8
신흥국	중국	12.4	15.0	12.8	13.9
	인도	17.8	15.0	13.7	14.3
	한국	104.6	15.8	-7.1	4.3
	유럽	11.2	12.2	10.2	11.2
	브라질	11.9	14.8	18.7	16.7

기준일: 2026.02.25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 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정해창,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